

일본 농업 유산 인정에 대한 포인트
 ‘뛰어난 경관과 구마노 고도’

구마노나다에 접해 있는 편백나무 숲

이 지역은 미에현 내에서도 손꼽히는 바위산인 오다이 산맥(해발 1,000~1,400m)에서 급격히 고도가 낮아져 해안부인 구마노나다(태평양)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산악 지대에서 해안부까지의 거리는 10~15km 정도이며 경사면이 매우 가파르고 해안부에서 급경사면을 따라 산 정상까지 편백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 멋진 경관으로 인해 전국적으로도 보지 못한 뛰어난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마노나다에 접해 있는 편백나무 숲



편백나무 숲에 둘러싸인 돌길(마고세 고개)

세계 유산
 ‘구마노 고도’와의 관계

‘구마노 고도’를 따라 펼쳐지는 삼림 경관은 지금까지의 임업 생산 활동과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진화·형성되어 온 문화적 경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 390년에 걸쳐 이어져 온 삼림과 함께한 사람들의 생활이 구마노 고도 돌길 양쪽에 들어선 장엄한 편백나무 숲 등 지역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였으며, 경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 자원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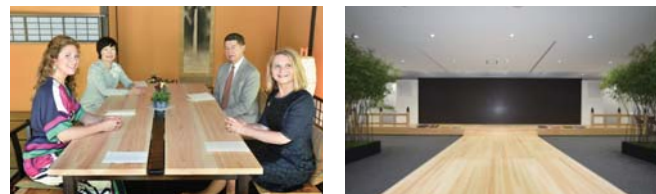
‘오와세 편백나무 임업의 새로운 전개’

이세시마 G7 정상 회담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는 주로 건축용 기둥을 중심으로 생산했으나, 최근의 주택 착공 세대수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를 배경으로 새로운 수요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2016년에 미에현 시마시에서 개최된 ‘이세시마 G7 정상 회담’에서는 정상 회담용 원탁, 국제 미디어 센터의 편백나무 무대 등 다양한 장소에 ‘오와세 편백나무’가 이용되었으며 사람의 손을 거쳐 정성스럽게 키운 나뭇결의 아름다움은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힘준한 지형과
 일본에서 손꼽히는 강우량이 낳은
 오와세 편백나무 임업

일본 농업 유산

Japanese Nation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미에현
 오와세시 · 기호쿠초

삼림 관리와 목재에 관한 문의 발행: 오와세 임정추진협의회

◆삼림조합 오와세 (오와세 임정추진협의회 사무국)
 우519-3408 미에현 기타무로군 기호쿠초 빈노야마 200
 TEL/+81-597-32-0275 FAX/+81-597-33-0028

◆오와세시 수산농림과
 우519-3696 미에현 오와세시 주오초 10-43
 TEL/+81-597-23-8224 FAX/+81-597-23-8303

◆기호쿠초 농림수산과
 우519-3292 미에현 기타무로군 기호쿠초 히가시나카사마 769-1
 TEL/+81-597-46-3116 FAX/+81-597-47-5905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오와세 편백나무' 임업 owase hinoki



편백나무 숲

그 가치는...

미에현 오와세시·기호쿠초는 오다이 산맥과 이어진 험준한 산악 지대이기 때문에 벼농사에는 맞지 않아 예로부터 임업이 발달하였으며 1630년 전후로는 인공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연평균 강우량이 3,800mm를 넘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며 땅이 척박한 자연 조건에 적합한 편백나무 식림이 1850년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현재는 인공림의 90%를 편백나무가 차지할 만큼 일본 전국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힘든 편백나무 조림 지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척박한 땅에서 성장이 더디다는 불리한 조건을 역으로 활용하여 묘목을 촘촘히 심어 간벌을 반복하여 고품질의 편백나무를 생산함과 동시에 예로부터 숲과 바다의 관계를 의식하여 생물 다양성도 고려한 삼림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편백나무 숲은 리아스식 해안에 접한 급경사면과 세계 유산 '구마노 고도' 주변에 펼쳐져 있어 지역 고유의 경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독자적인 전통적 임업 활동이 높이 평가되어 2017년 3월, 일본 농업 유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본 농업 유산 인정에 대한 포인트 '임업 활동이 가져오는 생물 다양성'



정지망을 활용한 방어 조업



어종 보호를 위한 보존림



굴 양식에 사용되는 오와세 편백나무



흰오징어의 산란



식림 체험

책임 있는 삼림 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생물 다양성까지 고려한다

이 지역은 일본에서 최초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삼림관리협의회)의 삼림 인증을 취득한 지역이며 숲 속 지표면의 일조량 환경을 고려한 삼림 관리를 실시하여 천연림보다 많은 상록 활엽수 식물종이 인공림에서 확인되는 등, 우량 목재 생산을 위한 임업 선진 지역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고려한 책임 있는 삼림 관리를 추진하는 선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숲을 지키는 일은 바다를 지키는 일

이 지역의 연안부에는 중요한 어장이 존재하며 이러한 지역의 해안부에서는 인공 조림 대상지에서 제외하여 삼림을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는 어종 보호를 위한 보존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숲과 바다의 관계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으며 식림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에도 굳이 어종 보호를 위한 숲으로 보호한 것이 생물 다양성의 유지와 해당 지역의 풍부한 어업 자원의 보전·지속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생물 다양성 교육의 일환으로 간벌제를 해저에 설치하여 흰오징어 산란장으로 활용하는 활동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 농업 유산 인정에 대한 포인트 '강하고 아름다운 편백나무 육림 시스템'

오와세 편백나무 임업 발전의 역사

이 지역은 평지가 매우 적어 경지 면적이 전체의 1% 정도에 그치는 등, 농업지 확보가 어려운 한편, '기노쿠니'의 별칭으로 '나무의 고장'이라 부르며 삼림이 풍부한 지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1600년대 중반부터 식림·육림을 실시하는 순환형 임업이 시작되었으며 해운업 발달을 배경으로 교토·오사카, 에도 등 대도시로 화물 수송이 용이했던 점이 임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확립된 고품질 목재의 육림 체계

본격적인 인공림 조성이 시작된 이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일반적인 편백나무 식재 수의 2배 이상인 6천 그루~1만 그루/ha의 밀식이 이루어졌으며, 가지치기 기술을 구사하여 마디가 없거나 극히 적은 양질의 유심재를 생산했습니다. 최근에는 숲 속 지표면의 일조량을 고려하여 간벌률을 높이고 식림 하층 식생의 침입·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임지 토양을 보전하면서 목재를 생산하는 환경 보전형 임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벌 풍경



가지치기



식림

일본 농업 유산 인정에 대한 포인트 '편백나무를 활용하는 기술과 지혜'

편백나무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발전

이 지역은 지형이 험준하고 비가 많이 내리므로 삼림 내에 있는 도로를 통한 반출은 제해 위험성과 비용 증가로 이어져 필연적으로 가선 집재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가선 집재에 의해 통나무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운반하여 시장 동향에 따라 목재 길이를 바꿀 수 있어 수익성 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통나무의 개성을 꿰뚫어 보는 장인의 기술

오와세 편백나무는 치밀한 나이테와 풍부한 유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강하고 아름다운 특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제재 사업자는 통나무 하나하나의 품질을 파악하고 가장 높은 가치의 목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성스러운 제재 기술을 키워 왔습니다.

증명된 강도

미에현립 구마노 고도 센터를 건설할 때는 오와세 편백나무 기둥재가 6,549개 사용되었으며 그 전체에 대해 탄성 계수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서 산출된 편백나무는 강도 성능 등의 제질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치밀한 오와세 편백나무의 나이테



반출



벌채



오와세 편백나무 기둥재



제재 풍경